



F1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드라이버 육성이 필요하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F1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국인 F1 드라이버를 키우자”

‘F1의 꽃’ 드라이버 전 세계에 24명 뿐 각국 모터스포츠 발전위해 육성 열을 올려 17세 서주원 최고 유망주... 임채원·최명길도 주목

한국에서도 스타 카레이서가 나올 수 있을까? F1의 꽃은 드라이버다. F1 후발주자인 중국·일본 등도 드라이버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모터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드라이버 육성이 필수적이다.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가 한국을 대표할 드라이버를 키우기 위해 ‘영 카트 드라이버 스칼라십 2012’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F1 드라이버 연봉 1000만달러 넘어= 전 세계에서 포뮬러원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드라이버는 한 해에 오직 24명뿐이다. F1 드라이버는 전투기 조종사 수준의 높은 종력 가속도를 견딜 수 있는 체력 조건은 기본이고, 빠르면 5살부터 조기 입문한다.

드라이버는 대부분 연봉 1000만달러 이상을 받으며 스포츠 부호로 알려져 있고, 실력이 검증된 스타 드라이버는 순수 연봉만 3000만~4000만달러에 이른다.

유럽의 경우 유소년들이 레이싱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카트(KART) 대회를 열고 있다. 카트를 통해 능력을 입증한 소수의 선수들은 엔트리 포뮬러(포뮬러 BMW, 포뮬러 르노 등)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이들 선수 중 일부는 다음 단계인 F3, GP2를 거쳐 포뮬러원에 진출하게 된다. F1 최고 스타인 루이스 해밀턴도 어린 시절 카트 대회에서 잇따라 우승을 차지하면서 정식 F1 선수가 될 수 있었다.

F1은 12개 팀이 활동하고 있고, 팀당 2명씩 정식 드라이버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경쟁을 통해 단 24명만이 머신에 오를 수 있는 셈이다.

◇중국·일본 드라이버 육성 경쟁=F1을 치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자국 드라이버 육성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 선수로는 50여명의 일본 드라이버가 F1과 그 하위 대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인도·말레이시아에 이어 중국인 첫 F1 드라이버 탄생

이 가시화 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를 열기 시작한 일본은 현재 자우버 팀에서 고바야시 가부미가 F1 드라이버로 활동하고 있다.

상하이 F1을 치르고 있는 중국도 HRT팀의 마칭화(26)가 F1 드라이버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상하이에서 태어난 마칭화는 8살때 카트로 기본기를 익혔고,아시아 포뮬러 르노, 이탈리아 F3000, A1 그랑프리, 스페인과 영국 F3에서 활동했다.

그는 최근 HRT의 영드라이버 육성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팀에 소속됐고, 월드 시리즈 르노 레이스에 출전해 개인 테스트 및 시뮬레이터 평가를 받게 된다.

◇한국도 카트 대회 등 육성=영양 서킷에서 한국 드라이버를 볼 수 있을까? 국내 드라이버 육성은 아직 결음마 단계다. 지난 1988년 한국인 최초로 파리-다카르 랠리에 참여한 1세대 드라이버는 박정봉 이후 많은 젊은 드라이버들이 육성되고 있지만 대회 수 자체가 적어 선수 발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F1 코리아그랑프리 홍보대사인 서주원(17)이 최고 유망주로 손꼽히고 있다. 아시아 카트 대회에서 5위 이내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서주원은 ‘2011 한국모터스포츠 어워드’ 최연소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F3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 최고의 포뮬러 최명길.



일본 슈퍼-FJ(포뮬러주니어) 클래스서 우승을 차지한 임채원.



아시아 카트 대회에서 5위 이내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최고 유망주 서주원.

올해 코리아카트 챔피언십 2연승과 일본 카트 대회 톱10 진입에 이어 지난 4월 말레이시아 F1 서포트 경기로 열린 JK레이싱 아시아 시리즈에 출전해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또 현대자동차와 STX팬오션, 산업은행과 후원 계약을 맺고, 한국 F1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한국인 첫 F1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약속을 받기도 했다.

임채원(28·김스레이싱)도 뜨고 있다. 그는 2010년 일본 오토폴리스에서 열린 슈퍼레

이스 신인전(1600cc)서 폴투파니시(에선 결선 1위)를 거뒀고, 데뷔 1년만의 일본으로 건너가 포뮬러 중급 대회인 슈퍼-FJ(포뮬러주니어) 클래스서 첫 우승을 해냈다. 또 F3 대회인 마카오레이싱에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F1 그랑프리 하부리그 격인 F3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최명길(27)은 현재 최고의 포뮬러 한국 드라이버 선수로 꼽히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네덜란드로 입양됐던 최명길은 2006년부터 유럽 F3 무대에서 활약했다.

한편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는 21일 경기도 파주 스피드파크에서 ‘현대자동차 후원하는 영 카트 드라이버 스칼라십 2012’ 프로그램의 두 번째 교육을 개최했다. KARA가 국제자동차연맹(FIA)과 진행하는 유소년 레이싱 영재 교육 프로그램인 이번 행사는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참가비 없이 모터스포츠의 기초 종목인 카트 레이싱 교육을 받고 직접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 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백1**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